

#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이 성 환

I. 서론	V.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식민지 기억의
II. 문화교류가 없는 국교정상화 - '65년체제'	연쇄구조
III.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과정 - '98년체제'	VI. 결론 - 일본 대중문화 유입과 한일관계의
IV.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개방 담론	전망

## I. 서론

한국 정부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제한해 왔다. 과거 식민시대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치·외교적 연대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대중문화 교류의 제한은 기형적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990년대 글로벌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특정 국가와의 문화교류 제한은 국제적 조류에도 벗어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1998년 4월 17일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오부치 게이조(小渊惠三) 일본 총리와 한일파트너십 구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형성에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개방조치에 앞서 한국정부는 한일 문화교류정책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을 밝혔다. 국민적 합의, 단계적 접근, 상호주의, 건전한 문화교류, 민간차원의 교류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상호주의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은 새로운 우호관계

설정을 위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그 동안 밝힌 자성의 모습을 성의 있게 뒷받침하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상호주의를 식민지에 대한 과거 청산과 문화 개방이라는 교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의 교환적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처럼 한일 간의 대중문화교류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식민지의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식민지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일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양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문화의 유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문화 유입 허용(개방)은 곧 한일 간의 상호 문화교류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한일 문화교류가 아니고 일본 대중문화 ‘유입’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조약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으나, 한일관계는 이러한 조약 등의 하드웨어적인 틀만으로 규정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일 간에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여전히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관계에서 조약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제도가 갖는 효용성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가지는 구속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문화교류와 같은 비제도적인 요소가 가지는 효용성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일관계를 보다 중층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은 과거사 즉 식민지 경험에 대한 기억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면,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문화의 유입이 한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그것이 한일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은 한일관계를 다양화 시키고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일본의 한국

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객관화를 가져와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다.<sup>1)</sup> 그러나 그 후에도 한일관계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05, 2006년의 독도문제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당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반감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한국에게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 문제와 직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현상을 한상일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외교적 마찰은 정치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감정에서 기인했고, 그 원인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괴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관계는 대중문화의 교류 등을 통한 민간 교류와는 관계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사 즉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한일관계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식민지의 기억이 한국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문화의 유입이 한일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즉, 식민지 경험, 일본문화 유입(개방), 한일관계의 3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적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정책의 성격을 살펴 보고, 문화개방 이전과 이후의 한일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그러한 변화와 일본 문화 유입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曹圭哲, 2001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단국대학교 단국일본연구학회 편, 《일본의 언어와 문학》 8, 116

2) 2006년 4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중앙일보》 2006년 4월 26일).

3) 한상일, 2000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바람직한 한국, 북한, 일본관계의 정립>현대일본회, 《남북화해시대의 한반도와 일본》(2000년 10월 12일, 21세기 평화연구소, 현대일본학회 한일포럼 발표논문) 127~128.

## II. 문화교류가 없는 국교정상화 - '65년 체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전후 한일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5년 체제'라 부른다. 65년 체제는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된 기본관계조약, 청구권조약, 재일 동포 지위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 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식민지기에 일본이 약탈해 간 문화재 반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 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협력을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이 협정을 기초로 1967년 한일 문화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여론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정부도 반일 감정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본문화의 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65년 체제는 양국의 관계를 정치, 경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는 제외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1998년 10월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선언이 이루어지기 까지 지속되었다. 즉, 65년 체제를 기초로 한 한일관계는 ‘문화교류가 배제된 정치 경제 중심의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한일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작용했으며,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관계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협력적 관계, 문화적으로는 비우호적(적대적)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가깝고도 먼나라 라는 한일 관계는 반드시 지리적,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와 문화적 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가 없는 실질적인 양국 관계는 가능한 것일까.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교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국교 정상화 협상과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세

4) 장인성, 1998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해방’ - 일본 대중문화 담론의 성격과 개방의 방향 -> 《국제문제연구》 22, 78

계에서 가장 긴 협상과정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대만, 동남아시아 각국이 일본과 1950년대 중반에 국교를 정상화 한 것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두 나라의 간극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부에서 한일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유를 이정식 교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로 결론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원했던 것은 일본인들에 의해 짓밟힌 국민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신적 화해’였다. 한국이 일본에 입한 기본자세는 정신적이며 도덕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법적·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국의 자세는 통합적이고, 동양적인데 비해 일본의 그것은 단편적이며 서구적이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인간의 고통과 모욕감을 논한 반면, 일본인들은 그들이 한국에 가져다 준 물질적 혜택을 거론하였다. 이승만시대에는 이러한 대립된 입장이 두 나라의 감정을 어지럽혔으며, 이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西方人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문화적 간격이 존재했던 것이다.<sup>5)</sup>

즉 한일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에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이른바 구보다(久保田) 발언과 카이로선언에 명기된 “한국 국민의 노예상태”론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의 갭이 1950년대 한일회담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물질적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법률적 접근을 시도한 데 반해 한국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면서 도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여기에서 정신적 피해와 도덕적 측면은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문화적,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손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희 교수가 “(일본에 대한) 저항의 자세에서 전통적인 倭奴觀-尙武적인 후진 문화라는 멸시관에서 새삼 虎狼 같은 수구관이 첨가되고 그 위에 또 다시 우리보다 선진인 근대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요인이 겹쳐지게”되면서 민족적 대립의 콤플렉스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sup>6)</sup>

이러한 민족 아이덴티티의 손상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요구로 이어지며,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일본 색깔 지우기와 일본 문화유입의 금지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인식 구조 하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한국인의 대일 거부감이라는 국민정서의 상징으로”, “일본에 대한 민족적 거부 심리의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

5) 이정식, 1986 《韓國과 日本-政治의관계의 照明》(교보문고, 서울) 45~45

6) 이용희, 1977 《한국민족주의》(서문당, 서울) 256~257

잡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유입은 매우 곤란한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관계회의의 교섭과정은 문화교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한국은 1905년 이후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으나, 일본은 문화재 반환을 계기로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sup>8)</sup> 즉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문화협력의 견지에서 문화재의 인도를 고려한다는 일본 측 입장과 문화교류보다 식민지기에 [약탈해 간 문화재] 반환문제의 선결을 우선시하여 반환문화재 품목의 목록 제출을 촉구하는 한국 측 입장이 대립했다. 재차 일본 측은 문화재 품목 목록과 문화협력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고 의정서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sup>9)</sup>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문화재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은 문화교류에 대해 가능한 협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회담을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문화재를 반환받아 손상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동시에 일본문화 유입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문화재를 반환하는 대신에 한국이 일본문화의 유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한국이 일본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금지한 데에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사정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하에서 동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민족말살 정책을 경험한 한국으로서 민족문화의 복원이 큰 과제로 놓여 있었다. 해방 후에 전개된 강한 반일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민족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문화적 침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문화의 개방은 곧 일본문화의 일방적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교정상화 직후의 1965년 6월 28일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문화의 대량유입의 문제점으로 국내문화 활동의 위축과 문화주체성의 약화, 가치판단 기준의 동요” 등을 우려하면서 “문화계 자체의 대책과 정부입법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sup>10)</sup> 또 1966년 3월, 정부는 <국

7) 黒田勝弘, 1998 <일본 대중문화의 금지와 개방에 대해> 《일본학보》 5, 20

8) 한일회담 외교문서, <예비교섭 문화재관계 제1차회의 회의록 요약> (1963년 2월 13일) 문서번호 68860006.

9)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8 《한일회담 외교 문서 해제집 III》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912

교정상화에 따르는 일본의 정신적 침투에 대한 여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문화 도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일본의 독소문화에 휩쓸릴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퇴폐적인 저급문화 및 정신적 침략을 받게 될 일본풍 종교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sup>11)</sup>

덧붙여 이처럼 한국정부가 일본문화의 유입을 우려한 데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회가 명기되지 않은 채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경제 개발과 동아시아의 냉전이라는 현실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불가피하게 한 점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문화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개방을 금지했다는 것이다.<sup>12)</sup> 친일 경력이 있으면서 무리하게 ‘굴욕적’인 국교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진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 수용하기는 어려운 정치적 입장도 작용했을 것이다.

### Ⅲ.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과정 - ‘98년체제’

65년 체제가 문화교류가 제외된 비정상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문화교류는 불가피했다. 여기에서 문화교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본은 한국 문화의 유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문화개방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줄곧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한국이 식민지의 기억을 근거로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금지한 데 반해 일본은 자국의 대중문화의 보급으로 과거 식민지의 기억을 지우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일본은 1972년 국제교류기금을 창설하고 1987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대외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 이래 “전후정치를 결산하고 (중략)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서가 아니라” 경제대국, 국제화 국가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심으려 노력했다.<sup>13)</sup>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일본을

1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8 《한일회담 외교 문서 해제집 IV》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664

11) 《위 책》 755~756

12) 장인성, 1998 <앞 논문> 78

13) 박충석, 유근호, 2001 <현대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국학 연구> 《梨花史學研究》 28, 158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대중문화가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없는 전후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용,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일본의 현대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없애려는 강력한 욕망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인기를 끈 것은 일본 지식인이나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을 흥분하게 하였다. 그들은 일본 대중문화가 일본 문화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는 지적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4)</sup>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오싱(Oshin)’은 아시아 각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오싱을 통해 아시아 각국은 가족애, 근대사의 고난 등을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근대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sup>15)</sup>

이러한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과 전파는 특히 대만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에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계엄령 해제와 함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일본의 위성 방송이 방영되고 부터이다. 그리고 1994년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해금으로 더욱 박차가 가해져, 1998년에는 일본방송만을 취급하는 케이블 방송이 5개가 될 정도가 되었다. 물론 대만에서의 일본문화가 큰 저항 없이 유입되고 수용되는 데에는 “대륙에서 넘어 온 국민당의 압제와 탄압 경험의 반동으로서 일본 통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일본 TV 프로그램의 유입과 수용을 비교적 쉽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sup>16)</sup> 대만은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후 한국과는 다른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당의 지배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당 지배에

14) 이와부치 코이치, 2003 <일본 대중문화의 이용가치 -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지 욕망 -> 조한혜정·황상민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08

15) 오싱(Oshin)은 한국에서는 방영되지 않았으나, 2008년 5월까지 전 세계 64개국에서 방영되었다. 1984년에 태국, 싱가포르, 1985년에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방영되었으며, 1994년에는 대만, 베트남 등에서 방영되었다. 그리고 1991년 2월, 동경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오싱이 방송된 각국의 관계자가 모여 ‘세계는 오싱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주최: NHK인터내셔널)이 열렸다. 여기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李德純씨는 “일본인만의 오싱이 아니다. 중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인, 전 세계의 오싱이다. 일본만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오싱이라는 인물의 이미지 특히 그 민족정신 이것을 나는 전세계가 공유하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www.nhk.or.jp/archives-blog/2008/06/oshin2.html>, 2009년 7월 13일 검색).

16) 이와부치 코이치, 2003 <앞 논문> 115에서 재인용. Liao, 1996



대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반동이 일본문화 유입을 쉽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대만의 일본 문화 유입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만은 일찍부터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본 문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1988년 5월 영국을 방문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수상이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3개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를 역설했으며, 그 다음해 9월 5년간에 걸친 ‘국제문화교류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적극적인 문화외교가 본격화된 1990년 이후 논의가 활발해졌다. 1981년 한일의원연맹 제9차 합동회의에서 “문화교류기금 설정”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1983년 12월에 제 1차 한일문화교류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2, 3년에 1차례씩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대중문화 개방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이용해 한국에 대해 일본문화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을 앞세운 한국정부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1983년 1월 한일경협 차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일본 수상으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수상은 “문화적 국경을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는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중략)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형태로 공동성명에 반영되었다.<sup>17)</sup> 1988년 3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민간 중심의 “21세기 한일위원회” 발족에 합의하고 8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문화개방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개선 문제와 재한 원폭피해자 치료요양기금 지원 문제, 일·북한 관계개선 추진 시 사전협의 등에 합의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언급되었다. 1990년 3월 제4차 한일문화교류 실무자 회의에서도 일본은 대중문화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후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한국정부는 일본 음악과 영화의 개방 의사를 밝혔으며, 1994년 1월 공로명 주일한국대사는 일본문화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했다. 그 이듬해 2월 이홍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밝힘으로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1997년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17) 《조선일보》 1983년 1월 13일

후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언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다. 1998년 4월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공식확인하고, 5월 13일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일본문화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을 통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제2항에서 오부치 수상은 과거보다 진전된 형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30억 달러 차관도입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30억 달러의 차관도입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또한 오부치 수상의 사죄에 대해서도 65%의 한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18)</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전된 사과 표명과의 교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전된 사과 표명을 외교 문서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 개방을 수반한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이를 통해 문화교류가 배제된 비정상적인 65년 체제는 문화교류를 포함함으로써 정상적인 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98년 체제라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

#### IV.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담론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기에 이르렀으나, 개방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기로 정책적 방향이

18) 김대통령 방일외교에 81% ‘만족’, 연합뉴스 속보, 1998.10.16

어느 정도 구체화된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논의는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나, 반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정하미의 아래와 같은 언급은 당시의 논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문화를 개방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은 백번을 해도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不毛한 논의이다. 그 이유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뿌리깊은 감정의 골과 직결되어 있고 게다가 구체적으로는 대중 즉 저질 문화라고 생각하는 만화, 음반, 가요, 영화라고 하는 문화 상품과 연결되어 일본의 문제인지 대중문화가 문제인지 개방이 문제인지 그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위의 글에서는 반대론의 주요한 근거로 한일 양국의 감정과 일본문화의 저급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반대론자들의 거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일본의 문화제국주의 내지는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자본력을 배경으로 우리의 문화산업 전반을 장악하여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려 한다는 시각이다.<sup>20)</sup> 물론 여기에는 일본문화를 개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위의 논의에서 일본문화 개방반대론의 핵심은 과거사(식민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으로 귀결된다. 일본문화의 저급성이라는 문제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된 것이며, 문화제국주의 역시 일본의 과거 침략주의와 식민지 하의 동화주의의 연장선상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일본문화의 저급성은 구체적으로 개방적 성문화, 청소년 폭력,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가리키고 있으나, 이는 일본 문화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문화에서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 전체를 저급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국의 민족문화 및 도덕적 우월성이 깔려있으며,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동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문화의 저급성론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문화 역시 일본의 것만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화의 저급성을 지적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미국문화 유입 반대론도 우리 사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 정하미, 1997 <일본 대중문화 수용의 다중구조> 《민중과 문화》 6, 322

20) 김필동, 2001 《리액션의 예술 일본 대중문화》 (새움, 서울) 6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강만길 교수는 반대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직은 식민지 시대에 침해된 한국문화의 독자성 및 주체성이 일본문화와 동등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치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事不如意하면 한국문화가 이번에는 동화정책이 아닌 시장원리라는 것에 의해 다시 일본문화에 동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두 나라 사이에 각기의 차별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대등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호혜적이지도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문화관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1)</sup>

즉 강만길 교수는 시장원리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시대의 동화정책에 대한 폐해의 역사적 기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된 것도 사실이다. 정대균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문화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해방 후 미군정 3년간이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남기고 간 생활문화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인에게 전파되었다고 지적 한다.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들만이 공유했던 생활문화가 해방과 함께 그들이 떠난 후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제한 없이 전파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해방 직후 식민지의 기억이 가장 생생한 시기에 일본문화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들었다는 사실은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반드시 일본문화의 유입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일반론과는 모순된다. 이는 일본문화의 유입과 식민지의 기억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찬성론자들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일본문화 개방론을 전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찬성론은 세계화, 국제화를 기초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문화만 안된다”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이 일본 문화산업의 10분의 1만 잠식하여도 오히려 한국 문화산업 전체 규모를 증가한다는 논의와 함께 일본 문화산업의 진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론을 폈다.

또 찬성론의 배경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 정부의 강

21) 강만길, 1998 <바람직한 한일문화교류정책의 기본방향> 한일문화교류정책지원위원회,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한일관계》 21

22) 鄭大均, 1990 <植民地支配の遺産> 《日本學誌》 10, 216

력한 일본문화 유입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문화 금지정책은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화의 경우는 일본 만화가 우리나라 전체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1996년 수입 만화영화 가운데 약 62%, 1997년 방송용 만화영화의 60%가 일본의 것이었다.<sup>23)</sup>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IMF 하의 1997년 12월 시점에서도 일본 만화, 일본 만화영화, 일본 게임의 접촉빈도가 각각 78%, 58%, 66%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문화를 접하고 있다. 또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일본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금지정책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대중문화는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미 대량 유입, 수용되고 있다. 상황은 오히려 규제가 필요할 정도이다”고 한 지적은 당시 한국사회의 일본문화 유입실태를 상징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 자체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에 식민지의 기억을 강하게 연결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개방 조치를 취하면서 5대 기본방침을 밝히고,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본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그 동안 밝힌 자성의 모습을 성의있게 뒷받침하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과거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와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개방을 실시해갔다.<sup>26)</sup> 그리고 교과서문제가 발생한 2001년 7월 한국정부는 “일본 대중문화개방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제4차 개방을 중단했다.<sup>27)</sup>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 정책이 식민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인식과 같은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일반의 인식은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23) 김필동, 2001 《앞 책》 55

24) 馬居政幸, 2001 <한국은 금후 일본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 상황을 통해 보는 수용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 > 《일본문화연구》 4, 74

25) 黒田勝弘, 1998 <앞 논문> 20

26) 문화관광부, 2001 《문화정책백서 2001》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서울) 431

27) 문화관광부, 2001 《위 책》 437

## V.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과 식민지 기억의 연쇄구조

한국인의 초기 일본 인식(고정관념, 특히 부정적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으며,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형성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은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인식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sup>28)</sup> 미루어봤을 때, 전반적인 일본 인식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숙희 씨의 연구에 의하면<sup>29)</sup>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 관련(42%), 문화 관련(35%), 지리(20%) 등 이라고 한다. 역사 관련은 일제강점기(48%), 임진왜란(35%), 독도(9%)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 관련은 애니메이션, 스포츠한일전, 일본어, 한류, 초밥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 인식은 주로 교과서와 수업(33%), TV나 신문, 인터넷(31%), 책(24%), 부모나 가족, 친구(12%)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역사 관련은 주로 교과서나 수업을 통해서, 문화 관련은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일본 인식을 형성하는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면 전체의 약 27%(137쪽 가운데 37쪽)가 일본에 관련된 기술이며, 그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관한 것이 68%, 임진왜란, 문화전파, 경제교류가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전파는 가야와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수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교류는 주로 통일신라, 발해, 고려와 일본의 무역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일본 관련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일제식민지기에 관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경제교류에 관련된 것도 한국의 우월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의 문화를 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한국인의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

28)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獨島・竹島問題の政治學》(ミネルヴァ書房, 京都)

29) 하숙희, 2006 <초등 학생의 일본인식 실태와 역사수업을 통한 개선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28

는 것일까. 이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경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직접 의식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점을 두 가지로 한다. 하나는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과 식민지 기억은 별개인가. 또 하나는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과 식민지의 기억이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구조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규명하는데 예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의 공개된 조사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sup>30)</sup>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문화 접촉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 10년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좋다, 싫다는 비율이 다 같이 줄어들면서 모르겠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적대적 감정이 다소 줄어들면서 중립적인 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다, 싫다는 비율이 줄어든 만큼 그것이 반대 쪽으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그만큼 저항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표 1> 일본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 조사 결과 비교(한국갤럽조사)

구 분		1993년9월 (18세 이상)	1994년9월 (18세 이상)	2002년2월 (20세 이상)	2004년11월 (20세 이상)
호감도	싫다(%)	63.1	64.2	56.9	43.7
	좋다(%)	33.9	33.9	33.7	26.8
	모름(별다른 감정없다)(%)	3.1	1.9	9.4	29.4
친밀도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42.5	48.7	

<표 2>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2000년 4월 조사, 20대 의식조사)

역사적 배경/과거사 때문	국민성이 맘에 안든다	모름	역사왜곡하고 반성 않기 때문	선입견	우리나라를 무시하기 때문	독도문제	성문화 문란	일본 문화가 싫어서
49.1%	13.7%	9.6%	7.9%	5.8%	3.4%	2.7%	2.4%	1.0%

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http://www.gallup.co.kr>)의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31) 이러한 견해는 우마이 마사유키, 2001 <앞 논문> 67, 78~79.

일본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배경과 과거사이다. 또 독도문제와 역사 왜곡과 반성 부족이라는 항목 역시 식민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의 약 60%가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다. 즉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기억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약 60여년이 지났음에도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약화되지 않는 이유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그 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억제되었던 민족주의가 갈등요인으로 표면화되고, 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과 함께 우경화가 지속되면서 정치인의 망언,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이 쟁점화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종래 군부정권 하에서 억제되었던 대일감정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며, 분출된 반일감정은 여론으로 형성되어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up>32)</sup> 양국의 이러한 사정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를 크게 만들었으며, 한국인의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여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쇄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인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요구와 일본문화 접촉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양자의 상관관계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일본 문화에 대한 접촉빈도를 증가시키고, 그것은 곧 한일관계를 호전시킬 것이라 논한다. 일반적으로 양국관계는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논의는 일본문화의 접촉과 수용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문화 접촉이 일본에 대한 태도 즉 호감도를 높이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늘어나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32) 이원덕, 1997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 사죄발언과 문제발언의 배경 및 정치과정>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출판사, 서울)] ; 이원덕, 2001 <한일관계의 구조 전환과 쟁점현황의 분석> 《일본연구논총》 14, 44~45



나 한일 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령별 측면에서, 일본문화 접촉률이 가장 높은 10대와 2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의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조사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문화 접촉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2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일본문화 접촉율이 약 3배나 높으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문화 접촉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사이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접촉이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한국인의 일본문화 접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개방 후에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일본문화 접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상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3)</sup>

<표 3> 일본문화 접촉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관계(갤럽조사를 이용해 재작성)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일본문화 접촉도(%) (1995년2월 조사, 20세 이상 남녀)	72.3	54.1	55.4	22.8
호감도 (아주 좋다, 약간 좋다, %) (1994년 9월 조사, 18세 이상 남녀)	18-24세	25-29세	30대	40대 이상
	30.9	35.7	32.2	35.8

33) 이러한 결과는 1999년 11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고 있다. 金居修省, 2000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37, 412~413

<N=336>

문 항	전혀 안됨	안됨	둘다 아님	기여	매우 기여	M	Std
문화개방으로 반일감정해소(%)	22(6.5)	115(34.2)	105(31.3)	85(25.3)	9(2.7)	2.83	.97
문화개방으로 우호관계구축에 도움	15(4.5)	46(13.7)	69(20.5)	195(58.0)	11(3.3)	3.42	.92
문화개방으로 일본에 대한 친근감 증대	22(6.5)	73(21.7)	60(17.9)	166(49.4)	15(4.5)	3.24	10.5
문화개방으로 문화교류활발	8(2.4)	78(23.2)	69(20.5)	173(51.5)	8(2.4)	3.28	.93

그러나 2002년도와 2004년도 실시한 일본에 대한 친밀도 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각각 42.4%와 48.7%였다. 2002년도와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친밀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1>), 데이터의 부족으로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친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 교류의 증대 및 일본문화 접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4)</sup> 이와 같이 호감도와 친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류와 문화 접촉을 통해 친밀도는 향상되지만 호감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양가성(ambivalence)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호감도는 인지적, 사회적 성격이 강하나, 친밀도는 개인적, 정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접촉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친밀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지적 기억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억제하고 있으며, 문화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주 만나는 이웃집 사람을 가깝다고는 느끼나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덧붙여, 2004년 12월 만20세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연구소의 <윤사마 열풍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는<sup>35)</sup> 조사에서 일본인들의 50.0%가 윤사마 열풍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44.4%는 그것은 단순한 문화교류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19.7%만이 양국의 친밀감 증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류의 확대가 친밀도로 직접 연결되는 정도가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에게 더 낮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요인보다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다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일본문화 개방 반대

34) 그렇다고 교류나 접촉의 증대가 반드시 친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일 간의 돌발 변수는 친밀도와 호감도를 다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호감도보다는 친밀도의 감소가 적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01년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의식조사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馬居政幸, 200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중문화의 역할 - 한일 공동문화 구축의 관점으로부터 - > 《일본문화연구》 8, 42~44 표 참조.

35)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pagePos=1&selectYear=0&search=1&search\(2009년 7월 22일 검색\)](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4&pagePos=1&selectYear=0&search=1&search(2009년 7월 22일 검색))

36) 황화철, 2004 <심리적 거리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한일비교> (한국마케팅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13

론과 찬성론을 염두에 두면서, 1995년 2월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표 4~11>).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와 “2~3년 내”, “가능하면 늦게”를 포함해 개방에 찬성하는 쪽이 약 81.1%를 차지하고, 개방에 반대하는 쪽은 18.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쪽이 61.7%, 반대하는 쪽이 32.4%, 모름(무응답)이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약 2배나 높게 나타났다. 개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일본 대중문화가 이미 폭넓게 침투되어 있으므로 빨리 개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61.5%가 이미 우리사회에 일본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72.2%와 68.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의 유입은 정부의 정책과는 관련 없이 이미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금지라는 정책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본문화 자체가 싫다”,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각각 24.4%와 2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민지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표 4>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일본 대중문화의 정도(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구분	많이 퍼져있다	약간	별로없다	모름
전체	61.5%	29.3%	8.6%	0.5%
20대	72.2%	20.6%	7.2%	-
30대	68.1%	25.2%	5.7%	1.0%
40대	57.1%	35.0%	8.0%	-
50대이상	44.2%	40.8%	14.1%	0.9%
일본문화 경험자	69.8%	24.2%	5.7%	0.3%
일본문화 비경험자	52.5%	34.9%	11.9%	0.7%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반대론의 주요한 근거의 하나였던 일본문화의 저급성으로 인한 폐해와 문화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해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일본 문화 개방이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도 절반을 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저급한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발생할 폐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오히려 발전

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으며, 특히 일본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더라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침체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8년의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1)식민지의 기억과는 관계없이 이미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2)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접촉 및 유입은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문화유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방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호감도와 친밀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문화의 유입으로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강화될 수 있으나, 그것이 호감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친밀도와 호감도에 관한 이와 같은 경향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계명대학교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간이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그렇다	아니다	모름	
	54.6%	44.1%	1.3%	
연령(그렇다고 대답)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8.3%	56.7%	58.7%	45.1%

〈표 6〉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그렇다	아니다	모름	
	48.2%	50.4%	1.4%	
연령(그렇다고 대답)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1.1%	48.5%	55.0%	52.2%

〈표 7〉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산업에 영향  
(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전체	일본과 경쟁할 수 없어 침체될 것	자극받아 발전할 것	모름	
	40.5%	56.2%	3.3%	
일본문화 접촉 경험	경험자(침체)	비경험자(침체)	경험자(발전)	비경험자(발전)
	37.8%	43.6%	58.4%	53.8%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3.3%	39.6%	40.3%	50.8%

〈표 8〉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반대 이유  
(1995년 2월 조사, 20세이상)

일본문화 자체가 싫다/선입견	피해의식	도움이 안된다	퇴폐/저질	청소년 교육에 안 좋다
24.4%	22.6%	7.9%	7.4%	4.6%

〈표 9〉 일본 대중문화를 빨리(2~3년내) 개방해야 하는 이유(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세계화 추세	이미 침투했으므로 우리 것 화해야	배울점이 있다
18.2%	13.1%	9.4%

〈표 10〉 일본 대중문화를 가급적 빨리 개방해야하는 이유(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세계화 추세	이미 침투했으므로 우리 것 화해야	배울점이 있다
16.5%	32.1%	14.3%

〈표 11〉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1995년 2월 조사, 20세 이상)

빠를수록 좋다	2~3년 내	가능하면 늦게	개방 금지	모름
15.2%	22.3%	43.6%	18.3%	0.6%

\*연령차 및 일본문화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일반론을 전제로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이면서 앞으로 한일관계의 담당자가 될 청소년의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의 최대 소비자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전후하여 청소년의 일본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본 문화개방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속연구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우려할 만한 특별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결과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일본문화의 접촉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일본에 대해 플러스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3월 조영달, 구정화가 초, 중 고등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sup>37)</sup> 일본 대중문화를 접촉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일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일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일본에 대한 동경’ 영역만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8)</sup> 즉 일본 대중문화의 접촉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를 다소 애매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민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를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으나,<sup>39)</sup> 이는 호감도가 아니라 친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호감도(favor degree)와 친밀도(intimate degree)에 대한 혼란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인다.

호감도는 “좋다”, “싫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며, 친밀도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개인적 기능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촉의 빈도가 높거나 동류의식이 강하면 친밀도는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조영달, 구정화의 같은 연구에서 “서구인보다 일본인이 좋다”는 응답이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좋다”는 응답보다 강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유사성에 의한 친밀감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서구인들에 대한 특별한 好惡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보다 일본인을 더 좋다고 응답하며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좋다”는 데 대해

37) 조영달·구정화, 1997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매체 접촉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

38) 조영달·구정화, 1997 <위 논문> 57

39) 조영달·구정화, 1997 <위 논문> 51

서는 큰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한국인에게 중국인과 일본인은 거의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호감도와 친밀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상당수의 연구에서도 호감도를 친밀도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또 위와 같은 일반론적인 견해를 벗어나는 연구 결과도 보인다. 상호지향성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대학생의 상호인식을 분석한 강현두 외 4인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문화 및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일본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 일본문화와 일본사회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과대평가와 매체 이용의 껍은 “오히려 상호 간의 오해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40)</sup>

가나이(金居修省)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되었으나, 반일감정 해소와 친밀도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sup>41)</sup> 전국의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박순애의 조사에서는 일본 문화의 접촉과 일본 호감도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초등학교 생이 가장 낮고 중학생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때의 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일본문화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sup>42)</sup>

또 하종원이 2002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본 및 일본 (문화개방)에 대한 태도 자체가 독립변인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화의 효용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즉 일본 대중문화 수용은 식민지에 대한 기억 등 일본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自益關興 즉 개인적 필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대중문화 수용을 분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었던 연구를 개인레벨에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40) 강현두·배규한·권호연·이창현·김동명, 2001 <한일 대학생들의 한일문화 및 사회에 대한 상호인식과 매체이용: 상호지향성모형의 적용> 《한국방송학보》 15-1, 38

41) 金居修省, 2000 <앞 논문> 412~413

42) 박순애, 2007 <한국 젊은이의 대일본 이미지 형성과 그 변화> 《한중인문학연구》 22, 338~339

43) 하종원, 2002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에 관한 일 고찰: 태도-행동 관계의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0-2, 120

## VI. 결론—일본 대중문화 유입과 한일관계의 전망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는 일본 문화의 유입을 금지한 정치경제 중심의 한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때문이었으나, 한국으로서는 식민지를 통해서 훼손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본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문화 개방에 즈음해서는 더 이상 일본문화 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문화의 접촉을 별개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는 헌팅턴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재발견하듯,<sup>44)</sup> 경제 발전을 비롯한 하드파워(hard power)의 성장이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우월성을 재발견한 한국인의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한국인의 일본문화 접촉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일본문화 접촉율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친밀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호감도는 일본에 대한 식민지의 기억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친밀도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한 일본문화 접촉을 통해 일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좁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식민지의 기억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즉 일본문화 개방과 식민지의 기억은 관련성이 없으며, 한국인은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문화를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구조가 식민지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를 큰 저항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문화로서 역사는 역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문화 개방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한일관

44) Samuel P. Huntington,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김영사, 서울) 참조]

45) 李盛煥, 2006 <日本とモンゴルにおける韓流の展望と課題> 《日本文化研究》 20 참조.



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이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지지 않지만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감소하면서 일본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친밀감은 호감도 향상으로 연결되고 한일관계는 결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를 살펴봤을 때, 한국인을 만족시킬 정도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본이 한국인이 만족할 만큼의 사죄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본이 한국인이 만족할 만한 사죄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을 수 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군위안부 문제가 밝혀졌듯이 새로운 과거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인의 식민지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한일관계도 여전히 불안정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한일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의 기억과는 별도의 레벨에서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친밀도의 향상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소 완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활발한 문화교류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한일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친밀도가 높아지면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독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정치, 외교 이외의 부분에서는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의 기억 때문에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민지의 기억과 별개로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일본문화 접촉 및 수용의 증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향상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령효과가 세대효과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 일본문화 접촉 및 친밀감의 증대가 지속적으로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기억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비평문]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본 논문은 식민지의 기억이 일본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입에 미친 영향과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 문화의 한국 유입이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정책의 성격과 문화 개방 이전과 이후의 한일 관계에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일 관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한 의욕적인 논문이다.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일본 문화 개방의 사회적 배경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과 일본 문화의 접촉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식민지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를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국인은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문화를 혼동하여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왜 이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 필자는 아래의 두 가지 점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 첫째로 일본에 의한 문화 교류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일본의 현대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없애려는 강력한 욕망이 생겼다”라는 이와부치 고이치(岩淵功一)의 논문을 인용한 뒤 대만을 사례로,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과 전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쓰고 있다. 확실히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며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나라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중문화의 유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되는 문화 교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문화 외교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극복에 있으며 그를 위해 문화 교류를 확대시켰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 본 논문에서는 이렇다 할 검증도 없이 인용 논문에 의거하여 일본의 문화 정책의 의도를 논하고 있는 점이 유감이다.

둘째로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경제 협력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전된 사죄 표명과 교환적 의미를 갖는다고 논하는 점이다. 김대중 이전의 역대 대통령은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정권 지지율 하락을 염려하여 개방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일본 대중문화가 이미 유입되어 있어 일본 대중문화 금지 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정책을 단행한 것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과 리더십에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다른 인물이 대통령이었던더라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하였을지는 의문이다.

## [집필자 답변]

우선 하루키 교수의 비평에 감사를 드리며, 전체적으로는 수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전제로 하루키 교수의 비평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이 일본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문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이다. 본 논문은 데이터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하여 추론을 한다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약 60년이 경과되었다는 시간적 문제와 해방 후 한국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해방으로부터 약 6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소수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식민지 기억은 식민지 경험의 당사자들로부터가 아니라 교과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식민지 기억에서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배제됨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해방 후 한국은 근대화에 성공함으로써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가운데 2차 대전 후 유일하게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일본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문화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기제를 형성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둘째, 일본문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문화 외교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극복에 있”다고 한 지적은 “더 많은 논거를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되나 본 논문은 일본의 문화정책론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급에 그쳤으며, 또 한국과 일본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본 측의 자료(이와부치 고이치(岩淵功一)의 논문, 및 <http://www.nhk.or.jp/archives-blog/2008/06/oshin2.html>)를 활용하였다. 또 논문에서의 필자의 지적은 하루키 교수가 “확실히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문화를 만들어 내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고 한 일반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대중문화개방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는 하루키 교수의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자의 가치관, 신념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환경적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현실적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1998년은 한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결정 외에 1998년 1월에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결과 9월에는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한국으로서는 근대화 시작 이후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대중문화개방 및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간의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위와 같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어업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개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정부도 현실적으로 일본문화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도 개방을 단행했을 가능성은 컸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정권 지지율 하락을 염려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개방책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하루키 교수의 지적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즉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대중문화개방과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친 일본적이라고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문화를 개방함으로써 가져올 여론의 반발은 다른 정권에 비해 훨씬 더 증폭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다소 보였다. 그러나 일본대중 문화개방 이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 및 여론의 반발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